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5강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1. 출애굽기 7장

1.1 모세 이해

출애굽기 7장부터 우리는 아주 신나는 장면들과 대면하게 된다. 모세는 바로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미지들이 눈앞에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장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7:1 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미지 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신’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모세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었는데, 한글 성서에는 이 용어가 ‘하나님’으로도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모세는 하나님이 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게 만든다.

이것은 먼저 고대의 왕 이해를 보아야 한다. 왕은 신에 의해 선택된 자로서 ‘신의 대리자’였으며, 신은 왕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이루었다(삼하 14:17). 동시에 왕의 말은 곧 신의 명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도 했다. 즉,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적 대리자였다.

출애굽기 7:1 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에게 신으로 나타난다. 마치 바로가 신의 대리자로 이해되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아웨의 대리자로 서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묘사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아웨와 애굽의 신의 대결로 연상되어야 한다.

1.2 나를 아웨인 줄 알지라

출애굽기 7-12장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었다. 여기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다(테다 키 아니 예호바 : 출 7:17;8:10[6],22[18]; 9:14,29; 10:2; 11:7; 12:12). 그러므로 재앙 사건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아웨의 능력을 인지하도록 이끈다.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은 고대 이집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기록을 고대 근동 문헌인 “이푸워(Ipu-wer)의 경고”가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나일강의 신, 하피(Hapi)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서는 시종일관 되게 애굽 신과 아웨의 대결을 보여줌으로써, 애굽 신의 능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턴이 이방 신과 대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재앙 이야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본문에는 두 가지 목적을 기초로 한다: 첫째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출 9:16).

야웨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후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 알려지고 있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둘째로, 본문의 목적은 후손에게 알리는 것인데(출 10:12), 그와 유사한 것이 신명기 6:6-9 에서도 관찰된다.

이것이 성서의 의미인 '가르침'과 연결된다. 히브리 성서는 TNK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TaNaK 라고 읽는다. 첫 번째 이니셜인 T는 Tora의 약자이다. 토라는 한글 성서에서 '율법'으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본래 '가르침'을 의미한다. '가르침'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대를 위한 것인가?' 혹은 '후대를 위한 것인가?' 본문에 따르면 본래는 '자손',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다. 즉, 출애굽기 이야기는 후손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오늘날 성서가 교회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출애굽 인구는?

2.1 60만 장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했는가?'에 대한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넘어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질문이 되며,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실락/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왔다.

출애굽기 12:37 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 만 명 가량이라고 보도한다. 장정만 60 만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대략 200-300 만 명으로 추산한다. '당시에 그러한 인구가 존재했었는가?' 또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식수가 부족한 광야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동시에 이 숫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봐인베르크(J. Weinberg)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인구에 관한 연구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전 8 세기 북왕국의 인구는 대략 50-70 만 명이었으며, 남왕국은 그것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25 만 명이었다. 또한 주전 10 세기 초반에 라기스(Lachish), 가자(Gazer)와 같은 팔레스틴 대도시에는 6,500-7,000 명 정도의 인구만이 거주했을 뿐이다.

또 하나의 주장은 히브리어 '엘렙'을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 용어는 숫자 '1,000'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가족' 또는 '부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0만 명의 장정은 600여 가족 혹은 부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애굽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야웨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티브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2 잡족과 가축들

38 절은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출애굽 할때에 히브리 사람만 나왔을 것이라는 이해와 달리, 이 기록은 ‘잡족’(에레브)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당시에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대단히 희박했으며, 게다가 ‘히브리’라는 명칭도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 성서들에는 “여러 민족” 혹은 “이국인”으로 번역되었다.

예레미야 25:20 에는 애굽에서 여전히 ‘섞여 사는 민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룬드봄(J. R. Lundbom)은 바이저(A. Weiser)와 제롬(Jerome)을 인용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려 시도한다. 게다가 이것은 ‘섞여 사는 무리’는 ‘아랍’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히브리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23장의 총회법을 근거로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하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민수기 11:4 에 기록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동일한가?’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히브리 성서에서 1회 등장하는 단어(Hapax legomenon)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들은 출애굽을 함께 한 자들로 등장한다. 출애굽기 12:49 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법은 구별없이 동등하다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로 들어가고자 했다면, 동일한 율법에 대한 적용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었고, 그것의 중심에는 토라가 있다.